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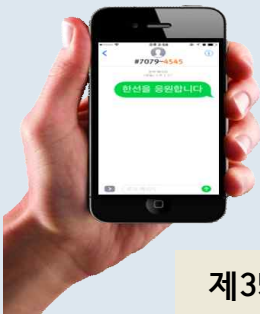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한국의 외교안보 위기, 현황과 과제

[발제자]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일 시] 2020년 11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54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한국 외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앞서 트럼프 집권기와의 연속성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미 정부 교체 후 초기 90일 이내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 국면에서 한미 간 전략적 소통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미중 패권 경쟁의 가속화가 현시점의 가장 큰 논제이다. 미중 패권 경쟁이 무역전쟁에서 이념 경쟁으로 변하고 있다. 무역 전쟁이 지속되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 한국 같은 통상국가에겐 치명적이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인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직접 외교를 통한 'Top-down' 방식이었다면 바이든은 북한의 선(先) 태도 변화와 철저한 실무적 준비 후 정상 회담을 하는 'Bottom-up' 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입장 조율을 통해 한미 동맹의 장기적 방향성을 세우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 2020년 미국 대선: 확정적인 바이든의 당선

가. 바이든의 과제

- ◆ 미국 국내 정치의 극심한 분열과 선거 과정 관리의 혼란으로 민주주의의 'role model'이라는 미국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이번 선거는 미국 민주주의 역량의 테스트가 될 것이다. 최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UN, WHO 같은 국제기구와 다자주의 등 글로벌 거버넌스와 미국 패권의 향배에 이번 대선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현 국제질서의 근간을 우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한다. 미국은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안보질서, 무역질서 등을 제공해왔다. 최근 미국이 선별적 개입으로 입장을 전환하면서 앞으로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누가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의 패권은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면서 더욱 약해졌다. 미국이 국익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나서지 않는 신고립주의를 계속하게 된다면 미국의 패권 약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나. 바이든 시대의 외교정책 기조

- ◆ 바이든의 정치와 정책 기조는 크게 국내 정치 어젠다를 중시하는 '민주당의 전통적 어젠다'와 '미국의 리더십 혁신', '아시아 정책'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민주당의 전통적 어젠다인 강하고 공정한 경제 건설, 보편적 의료보험 제공 등 국내 정치의 어젠다를 중시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리더십 혁신을 위해 동맹관계의 복원, 국제제도의 존중을 통한 다자주의의 실천 의지를 드러낼 것이다. 아시아 정책으로는 핵심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태국 필리핀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특히 대북 정책은 동맹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북 외교를 통해 북핵 프로그램 위협을 봉쇄하고 지역 도발을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 ◆ 바이든은 미국 글로벌 리더십 회복의 의지를 밝혔다. 국내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을 통해 국제사회의 물줄기를 만들고 합의를 도출하며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오바마 3기가 될 것인가 바이든 1기가 될 것인가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으나 리셋 2.0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바이든은 현실주의적인 색채를 가미한 진화된 버전의 오바마 시대의 외교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주의와 국제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가 주요 적들과의 관계 리셋을 지향했다면 바이든은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리셋할 것이다.

◆ 변하지 않을 두가지

가. 미국 우선주의 및 대중국 강경책 지속

- ◆ 백인 정체성의 정치가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정착되었다. 바이든도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 중산층인 러스트 벨트의 노동 계층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들을 향해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 한다는 메시지 발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는 지속될 것이다.
- ◆ 미국은 중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전략적 경쟁자로 만들었다는 실패론에 빠졌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국제질서의 본질을 ‘경쟁적’이라고 인식했다. 중국에 대해 협력보다는 공개 압박과 봉쇄 전략 등의 ‘경쟁적 접근’을 천명하며 중국을 압박하였다. 미중관계가 본격적인 패권 경쟁으로서 가치 경제의 체제 경쟁으로까지 확전 되고 있다. 바이든이 중국을 대하는 접근 방식은 트럼프처럼 직접 중국을 압박하는 대신 동맹과 우방국들의 연대를 통한 다자적 압박으로 중국을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 한미 관계

가. 한미동맹 강화와 방위비 분담 타결 전망

- ◆ 바이든은 한미 동맹이 ‘피로 뺏어진 동맹’이라고 칭하며, 주한 미군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동번영과 가치, 안보 증진, 국제 사회의 도전에 대한 대처에서 한국과 미국은 같이 나가기를 희망했다. 트럼프 시대에 비해 동맹 현안으로 인한 갈등 소지는 줄겠지만, 바이든 정부의 ‘가치 지향적’ 어젠다는 북한 인권 문제에 한국이 보조를 맞춰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미 동맹 이슈는 한미 간의 이견에 대해 얼마나 원만하게 이견의 폭을 좁

히고 해결해나가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다.

- ◆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은 한국을 압박하기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양측 간 협상을 타결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52차 한미 SCM 공동성명에서 한국이 동맹에 더 기여를 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앞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문제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역할을 더 요구할 것이다. 동맹 문제 중 제일 심각한 문제는 실 사격장 문제이다. 한미 연합군이 매년 연합훈련을 하는데 북한 비핵화 협상과 민원 등의 문제로 실사격 훈련을 줄였다.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실사격 훈련을 가능한 사격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 ◆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 북한과 미국의 시각이 상당히 다르다. 한국이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시도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바이든의 북한 비핵화 협상 방식은 ‘top-down’에서 ‘bottom-up’으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종전선언 문제도 한미 간 온도차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다. 미중 전략 경쟁에서 한국의 국익 우선돼야

- ◆ “미국에 반대하는 쪽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2013년 방한 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언급한 말이다. 한미 동맹의 연장선상에서 대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하기 힘든 복잡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원칙과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라. 초당적 외교전략 수립과 이행이 중요

- ◆ 우리나라는 현재 전략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외교 전략에서 한국은 외부의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외교 전략을 수립했다. 전략적 모호성 또는 전략적 투명성을 취해야 할 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앞으로는 한국이 중개국으로서 우리의 주체적인 전략의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 한국이 정확한 입장을 표명할 시대가 오고 있다. 미국 정부, 특히 당이 바뀌면 초기 6개월 사이에 모든 중요한 이슈들이 재검토가 된다. 이때 한국의 초당적 범정부 차원의 이슈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